회개의 경혈

(눅13:1-9)

1. 그 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2.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6.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8.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9.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회개의 경혈>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회개를 하려면 정확하게 경혈을 알아서 침을 놓는 한의사처럼 분명히 어디에다 회개하는 마음의 침을 꽂아야 되는지를 알고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춘원당이라고 하는 한의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종로구 돈의동에 무려 170년 가까이 긴 세월을 7대에 걸쳐서 원장으로 내려오고 있는 아주 역사가 깊은 그런 한의원입니다.
매스컴으로도 소개가 되고 책으로도 소개가 되고, 심지어는 드라마 '최고의 사랑'의 촬영장소로도 나왔던 한의원입니다.

이 춘원당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기억이 나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7대 원장님이 윤영선 원장님이신데 아버지이신 6대 원장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인 5대 윤종흠 원장의 손에서 길러지시고 한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할아버지 원장님이 손자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손자의 온 몸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무슨 문신인가 하면, 사람 몸에 있는 365개의 경혈을 문신으로 새겨놓은 것입니다.
경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혈이 어딘가를 익혀서 맥을 짚고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 진단에 합당한 경혈을 찾아서 침을 정확하게 놓는 것이 한의학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침을 잘못 놓게 되면, 저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그만큼 잘못 되게 되면 치명적이고, 또 정확히 놓으면 한의학에서 침이라는 게 참 신비한 효험이 있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경혈이라는 거예요, 경혈.
5장 6부가 있는데, 5장 6부의 상황이 사람 몸의 겉 거죽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게 12 경락이라고 하는 길을 따라서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심장이라고 하면 심장과 연관이 되는 경락이 흐르는 중에 경혈이 있어서 그 경혈에 침을 놓으면, 심장을 양의처럼 수술을 해서 찢어내 가지고 심장을 직접 건드리지 않아도, 심장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한의학의 생명과 같은 원리 아니겠어요?
정확해야 되고, 경혈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회개에 대한 이해가 일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때 너무 두루뭉수리하다 이겁니다.
회개가 두루뭉수리하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은혜가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회개가 정확해야 회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주어지는 모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이 기가 막히게 좋은 은혜들이 다 효험을 내게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떻게 보면 회개로부터 시작되고 있고, 회개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는 일회적으로 한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중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죄적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회개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신앙의 역사가 같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정확해야 됩니다.
회개를 정확하게 그 경혈을 찾아서 찌르지 않으면 회개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발생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끔찍한 참변의 이야기가 두 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행위를 할 때, 빌라도의 군인들이 들어와서 아마 반란을 획책한 모의꾼들을 수색하다가 그 갈릴리 사람들을 오해했는지, 아니면 그 갈릴리 사람들이 진짜로 반란에 가담했던 자들인지 하여간 그들을 칼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와서 전할 때, 예수님께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시기를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앞서 있었던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주님께서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실로암의 망대를 공사하는 중에 망대가 무너져서 열여덟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과 이것이 연관이 되는 이유는,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죽게 된 이 사람들도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를 건설하는 건축비용을 빌라도가 성전기금을 강제로 횡령하여 유대 사람들인 인부들에게 성전기금에서 임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것은, 성전에 헌납되어진 성전기금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유대의 율법주의 기준으로 볼 때, 용서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자, 그러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왜 회개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율법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의 칼에 맞아 죽은 것과 실로암 망대를 건설하다 그것이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삶을 볼 때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들이 율법주의적인 기준으로 볼 때 드러나지 않은 행위적인 범죄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행위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천벌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주님께 와서 이야기하고 있고, 실로암 망대의 무너진 사건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 사건과 갈릴리 사람들의 성전에서의 참변,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죄를 보는 포인트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회개의 포인트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정확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제사가 왜 드려져야 됩니까?
제사의 의미는 양이 번제로 드려져서 불타고, 송아지가 불타고, 비둘기가 불탈 때, 내가 불타 죽는 것으로 고백하는 게 제사의 참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나는 불타 죽어야 됩니까?
더럽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선민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을 만큼 더럽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나 대신에 양을 불태워 죽이면서 내가 타죽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타죽어야 됩니까? 더럽기 때문이고, 그러면 왜 더러워진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마음 안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마음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도덕주의적이고 윤리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죄와 죄 아닌 것을 바라보는 그런 차원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를 잡아낼 수가 없고, 그러므로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행위적 영역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침을 아무리 행위의 영역에 갖다 찔러도 회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내가 도둑질을 했고, 거짓말을 했고, 간음을 했고, 살인을 했고… 이런 행위의 관점에서 회개를 하는 것으로 회개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있는 한,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회개는 그 영역에서 일어나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영역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보다 먼저 내 아내와 남편을 1차적이고 우선적인 현실로 느끼면서 마음에 받아들인 그 사실이 죄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가 더럽혀지고 추잡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현실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 더 무서운 죄악이고 나를 더럽히고 있는 추잡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더 앞선 걱정거리로 내 마음 안으로 끌어들여지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러 와서 그렇게 더럽혀진 내가 불타 죽어야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전부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나라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직장 사랑하고, 내 몸 사랑하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마음으로 끌어안고 있는 상태에서,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 추잡하고 더러운 온갖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다 끌어안은 나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유지시키고 있는 나를 복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것으로 제사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회개가 정확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타이밍에 일어나야 됩니까?
우선 마음의 영역에 일어나야 되고, 마음이 어떨 때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까?
동창을 만났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식사를 하기 위해 앉는 동창을 위아래로 훑다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세련된 명품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백을 탁 보는 순간에 '아, 저런 것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그 순간 그 타이밍이 회개의 침을 꽂아야 되는 경혈이 생겨난 겁니다.
인체의 경혈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열두 경락을 따라서 365개의 경혈이 많이 있지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의 침을 찔러야 되는 경혈은 삶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려면 지금 하나님을 표현하면 됩니다.
지금 천국을 느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바람은 언제나 '아, 지금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천국을 현실로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바람이어야 되고, 성령께서 선물로 주어지면서 천국과 하나님아버지가 제1현실로 느껴지며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하늘의 아들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이 '아, 저 백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 외제 자동차를 나도 탔으면 좋겠다, 저런 집이 있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서울대 들어가면 좋겠다, 돈을 더 벌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 어떤 상황들을 마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기쁘겠다고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바람피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란한 거라는 겁니다.
이 순간에, 지금 내가 무엇인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원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에 침을 놓아야 이게 바로 회개가 된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발목이 삐끗했을 때 빨리 침을 맞아야 치료가 빨리 됩니다.
그 삔 것이 오래 지난 다음에 가게 되면 꼭 한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빨리 오셨어야 빨리 치료 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마음에 소원이 생길 때, 정확하게 회개의 침을 찔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침은 어떤 침입니까?
바로 십자가 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침을 정확하게 바로 우리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소원이 생길 때 찔러야 됩니다.
'내가 죽은 자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십자가 침을 찌르면서 회개가 되고, 그 회개가 바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는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현실로 느낄 수 있으면, 천국을 현실로 느낄 수 있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마음에 바랄 것이 없어지는 그런 만족한 마음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온전히 활활 타서 죽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에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런데 과원지기가 중재에 나서면서 다음 해에는 꼭 열매를 맺게 할 테니까 1년만 참아주세요, 라고 해서 유예기간을 얻습니다.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망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죽는 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는 게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죽음 자체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죽음으로써 회개할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무화과나무가 땅에 심겨져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또 아름다운 관상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닙니다.
무화과나무는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심겨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업가로 성공하라고, 유명한 선교사가 되라고, 목회 잘하는 목사가 되라고, 이런 것 때문에 이 땅에 내보내신 게 아닙니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마음이 몸과 연관되어 있는 동안에 몸을 통하여 느끼게 되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많은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많은 것들이 있는 가운데에, 몸을 통하여 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좋은 것들을 마음에 끌어당겼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기간이 이 지상의 삶의 궁극적인 이유요, 유일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견줄만한, 내 마음의 사랑을 빼앗아 갈만한 많은 좋은 것들이 느껴지고 있고 산재해 있는, 내 자식도 좋고 내 아내도 좋고 내 남편도 좋고 내 애인도 하나님의 라이벌이 될 수 있고 돈, 강력한 라이벌이고, 내 몸, 강력한 하나님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기간이 삶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소원했던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한분만 있으면 만족하겠다는 결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고, 죽어버리면, 이제 회개할 기회조차 없어져버리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목회자로서 목회를 감당하고, 선교사로서 선교하고, 사업가로서 사업하고, 엄마아빠로서 아이를 키우는 이 모든 일은 다 무엇입니까?
그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사로 목사로 사업가로 의사를 하고, 별의별 것을 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얘깁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우리의 회개는 마음으로 어떤 행위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들은 당연히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영역이 거기서 이루어져서는 행위조차도 바뀌어 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영역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 침을 놓고 회개의 치료를 일으켜야 되는 경혈은,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여 소원하게 되는 그 순간, 그 타이밍에 십자가 침을 회개의 경혈에 꽂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 회개를 통하여 복음에 약속된 모든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죄 된 마음의 상태, 그때마다 정확하게 십자가의 침을 꽂아 정확한 회개를 일으킴으로써, 복음에 약속된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